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후학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률소비자연맹 김 대인 총재님, 그리고 저에게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상을 주관하는 법률소비자 연맹은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NGO로서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국가 사회적으로 다방면의 봉사활동과 법률운동을 펼쳐오으로써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명망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저로써는 무한한 기쁨임과 동시에 오늘의 이 시간이 지나온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상의 수상은 제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장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사람은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수하려면 절제적인 생활태도와 중용의 사상을 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수자는 이러한 미덕을 소유하였다고 여긴 데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제가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는 해이고, 지금까지도 변호사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는 금년 초두에 이와 같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되니 더욱 보람되고, 이제까지 몇 차례 받았던 상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나고 사표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본 상의 수여 취지에 볼 때 과연 제가 본 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학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라는 지상의 요청이 있었던 때라 이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였고, 학문적으로는 일본 법학의 잔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법학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팽배하던 때이었습니다. 학자들도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연구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학문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의욕이 훨씬 앞서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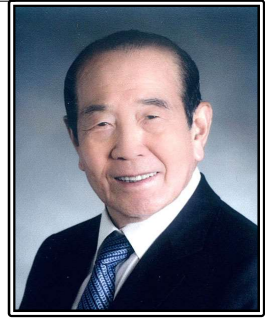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지금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법학 발전의 배경에는 이러한 법학 1세대에 속하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대의 일원에 속하면서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동분서주 학문 활동을 하였던 저도 약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저의 학문적 관심과 성과를 간단하게 회고해 보려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형법을 강의한 것이 30년을 넘었고 퇴직한 뒤에도 학술원 회원으로서 꾸준히 학문 활동을 계속한 지도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형법 총론과 각론, 형사정책 등의 교과서도 저술하였고 형사법에 관한 수 십 편의 논문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질서확립을 위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저술활동을 하였고, 또한 한국 법학의 수립을 위해 일제 침탈기 시대의 법규범과 그 적용의 문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점차 관심을 다각화하여 인간의 의사자유의 문제와 관련한 행위의 가벌성 문제, 위험범죄이론, 표현범의 문제 등으로 연구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인간의 의사자유의 문제와 관련한 행위 가벌성과 관련하여서는 물리학에서 Heisenberg의 불확정성 이론, 생물학에서 Monod의 우연성 이론 까지 시야에 넣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위험범에 관한 연구는 제가 거의 90이 되는 나이에 울리히 벡이나 니클라스 루만의 위험사회이론을 배경으로 분석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잊을 수 없는 연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저의 오랜 학문생활을 모두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두서없이 말하는 이유는 그 학문적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후학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노인의 일이고 장래를 바라보는 것은 청년의 몫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저로서는 학문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열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척해 나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제 제 감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상을 주관해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봉사활동과 법률운동을 전개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학문 생활이었음에도 이 같이 과분한 상을 주신 법률대상 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변호사 · 고려대 명예교수 南 興 祐



議會民主主義의 本 軌道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聲援과 鞭撻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議會民主主義의 本 軌道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聲援과 鞭撻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여러모로 不足한 이 사람을 權威 있는 大韓民國 法律大賞의 受賞者로 選定해 주신데 對해 무척 榮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悚懼스런 마음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1948年 5月 31日 大韓民國 制憲國會가 開院되고, 그 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出帆한지 64周年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北韓의 6.25南侵을 비롯한 國難과 온갖 試鍊을 克服하면서, 産業化와 民主化를 成就시켜, 마침내 世界G-20의 先進國 班列에 들어설 수 있는 國家的 位相을 높이는데 오랜 政治活動을 통해 적은 밀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國家發展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立法機關인 國會는 痼疾의인 黨爭과 舊態依然한 極限對立 등으로 政治發展을 遲延시키고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함으로서 이른바, 經濟는 1流 政治는 3流라는 頓蹙과 國民 嫌惡의 對象으로 轉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國會의 惰性和 惡弊를 是正하고 換骨奪胎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努力을 傾注했으나 刷新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國民에게 罪悚하게 自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政治에 몸담아 이 나라 民主化와 文民政治의 發展에 微力을 다 바치며 6選의 議政活動과, 특히 15代 國會議長으로 在任하면서, 때마침 與野가 政權交替로 國政運營이 매우 不安定 하여 모든 國政懸案이 한꺼번에 國會에 몰려 왔을 때, 立法府의 首長으로서 與野를 督勵하고 調整하여 나라의 根幹이 흔들리지 않도록 中心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과, 國會의 正常機能을 바로잡는데도 다소나마 寄與했었다고 自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國會가 오늘의 百尺竿頭의 벼랑에서 起死回生 하여 議會民主主義의 本 軌道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聲援과 鞭撻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名譽로운 賞狀을 授與해 주신 大韓民國 法律大賞 委員會 김대인 總裁님과 關係 任員 여러분께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지키고 法律文化 發展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도 尊敬과 感謝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27일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金 守 漢



국회의원 5선을 하는 동안 개혁입법을 주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회원여러분!

법률대상 입법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5선을 하는 동안 개혁입법을 주도해 왔습니다. 94년 정치개혁입법을 추진해 ‘돈은 묶고 말은 트는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정, 안기부의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화도청에 법관영장주의를 도입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등을 주도하였고, 97년에는 야당 원내총무로서 대통령후보 TV토론을 의무화하여 대통령후보의 자질 검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전국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감사를 한 후 장애인관계법 개정과 복지시설 근무자 수당을 현실화하였고,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 지원 등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여당 원내총무시절에는 당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야당을 설득하여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당시 IMF위기로 고통받고 있던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안전망의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초대법무부장관이 되어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구현(나라의 민주화)’과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법조계의 국제화·세계화)’를 법무행정지표로 설정해 IMF위기극복의 기반이 된 ‘사회안정’을 이룩했고, 박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하다가 실패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주요 경제사범의 미국도피를 억제하였으며, 「국제통상법률지원단」과 「수출중소기업지원 변호사단」을 결성하여 IMF위기당시 외국바이어들의 부당한 클레임으로 곤욕을 치르던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권법안」 제출, ‘잠 안재우기 수사’ 금지, 법조비리 수사 등은 공적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 상임고문시에는 2년 전 국회에서 여·야간 몸싸움을 방지하고 협상에 의한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조정절차’와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규정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상천 법안)을 추진하여 국회운영위에서 잠정합의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의료체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 의료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과 임상경험이 많은 군의무관이 부족해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국방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군에서의 의료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현재 병사들이 대개 외아들임을 생각하면 이는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큼니다. 군의료체계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권에 들어와 당 대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대표, 3회에 걸친 원내총무(현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을 지내면서 주요 협상타결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어느새 나이가 많아졌고 가족의 끈질긴 요청이 있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젊은 후배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법률대상 수상에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민주통합당 의원(5선), 전 법무장관 朴 相 千



이 나라 민사사법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천학비재(淺學菲才)인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법률대상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큰 영예로 생각합니다. 시상 주체인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그 임직원에게 감사하고, 심사의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심사위원들에게도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본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앞으로 더 잘해보라는 미래지향의 촉구인 것으로 겸허히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저의 과거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시절인 1948년 공산당의 숙청으로 고향을 떠나, 38선 소련병의 경비망을 뚫고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수공권(赤手空券)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피난민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밤에는 가업인 사제 ‘담배말이’의 일역을 맡았고 낮에 학교를 겨우 다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시절에 다행히 가정형편이 나아져서 학업에 몰두했으나 이과에 취미가 있어 그 쪽 공부를 하다가 부친의 강권으로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과에 미련을 못 버려 2년간 법공부는 접어두고 방황을 거듭하다가 3학년으로 진급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기 너무 늦기도, 다른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 엄친의 채찍에 모든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고 결국 법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공부와 법실무에 최대한 적응하며 60년간 중단 없는 전진 끝에 오늘의 조그마한 결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선도와 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영광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전적으로 돌립니다.

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은 역시 기회 땅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남은 여생 미력이나마 이 나라 민사사법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신의 가호와 앞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 감사원장 李 時 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점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이 탄생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소비자중심의 법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신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공급자 중심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도 서비스다란 말이 등장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에서 온갖 사법개혁과 새로운 국민중심, 소비자중심, 시민중심, 인권중심의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앞장서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받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앞서 수상하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의 경력이나 비중이 너무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된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주시는 뜻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옆에 시상자로 서계신 이석연 변호사와 한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기쁩니다. 이변호사와 저는 비슷한 연령이지만은 가끔 생각과 입장이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점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둘이 그리고 저의 세대가 힘을 합쳐서 더욱더 한국이 국민중심, 시민중심, 그리고 빛나는 나라로 키우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 인권위원장 安 京 煥



경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이고 국민은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법률대상 수상자(사법개혁 부문)로 선정해 주신 법률대상 심사위원님과 이 대회를 주관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만 경찰가족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개혁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이고, 경찰 조직으로서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에 몸담은 지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생활해왔지만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성찰과 함께 더욱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막중한 책무를 느낍니다.

저는 2010년 8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중심·현장존중’의 기치 아래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인사정의 실현, 부패비리척결, 인권보호 확립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요즈음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서도 경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침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주체로서 인정받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되어 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열망의 표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경찰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인권을 한 층 더 보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걸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선진화의 모든 지향점을 ‘국민’에게 맞출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이고, 국민은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안정적인 치안 확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 또한 그 성원에 보답하여 좋은 경찰을 넘어 ‘사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제16대 경찰청장 趙顯五



인재 양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제도개선과 문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쁨 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상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창달과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분들에게 주는 상이고,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만 보아도 우리사회에서 대단한 리더들인데 제가 이처럼 저명한 법률대상 수상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 위원님들과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게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와 질책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수상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외국변호사이지만 전문가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는 점에 수상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의 수상부문이 해외동포부문이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문, 즉 제가 수년전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교육에 대해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글로벌화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국제화, 다양성,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률부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법률시장개방과 법률교육제도의 탈바꿈이라는 전에 없는 큰 환경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해외동포법조인과의 유대강화와 진일보된 법률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한민족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이제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훌륭한 법률교육을 받은 유능한 동포 법조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민족 특유의 우

수성을 발휘하여 각 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법조인들은 인원수도 많아졌지만 국가적 분포와 종사하는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화 추세에의 필연성을 예견한 국내 법조계 선각자들이 해외동포 법조인들과 연대하여 세계한인변호사회(IAKL)가 창립되었고, 이제는 동족의 친목모임의 단계를 지나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교류와 교육, 또 상호업무협력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수, 판검사, 변호사, 정치인 등 뛰어난 인재들이고 모국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이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조계와 해외동포 법조계의 협력유대강화는 국제화, 다양성,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국익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지만 이제는 교수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와 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능력배양을 통해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고 이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제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와 사회공헌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선진화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인재 양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제도개선과 문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가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제 주변의 훌륭하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 위원님들과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다른 수상자님들께도 축하드립니다.

2012년 2월 27일

미국뉴욕주 변호사, 교수 Eunice K. Kim

